

 금융위원회	<b>보 도 참 고 자 료</b>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b>보도</b>	<b>배포 후 즉시</b>	배포	2018.9.28.(금)	
<b>책 임 자</b>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 주 형(02-2100-2860)	<b>담 당 자</b>	박 석 훈 사무관 (02-2100-2864)		

## 제 목 : 2018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

### ■ '18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 (대형은행 그룹) 1위 **KEB하나은행**, 2위 **기업은행**
- (소형은행 그룹) 1위 **부산은행**, 2위 **대구은행**

### ■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결과,

- **농협·대구은행이 레벨1**로 신규 진입

※ (레벨 심사) 은행별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은행 자체 기술평가로 기술금융 공급이 가능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체 평가 비중) (레벨1) 예비실시 → (레벨2)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 이내 → (레벨3) 50% 이내 → (레벨4) 제한없음

## 1 2018년 상반기 은행 TECH 평가 결과

- (평가 요소) 기술금융 ①대출공급규모와 ②질적 구성(기술기업지원 항목), ③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④기술금융의 은행별 내재화 정도(지원역량 항목)를 정성적으로 평가

※ 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신정원) → 금융연구원 검증 → 「TECH 평가위원회」 심사

< 평가 지표 (요약) >

	< 평가 항목 >		< 평가 요소 >	
	평가 지표	(배점)		
정량평가 (80점)	1. 공급규모	(20.0)	· 대출액, 차주수 증가	
	2. 기술기업지원	(45.0)	· 신용대출 비중, 초기기업 비중, 우수 기술기업 비중 등	
	3. 기술기반 투자 확대	(15.0)	· 기술금융 투자 증가	
정성평가 (20점)	4. 지원역량	(20.0)	· 기술금융 역량(인력·조직), 리스크 관리 체계, 기술력 반영 시스템 구축 정도 등	

- (평가 결과) 대형은행 그룹은 **KEB하나은행**이(72.8점/100점 만점) 1위를 차지하고 **기업은행**(71.5점)이 2위를 차지

- 소형은행 그룹은 **부산은행**(70.2점)이 1위, **대구은행**(68.8점)이 2위

<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

구 분		'14.하	'15.상	'15.하	'16.상	'16.하	'17.상	'17.하	'18.상
대형 은행	1위	신한	국민	신한	기업	기업	KEB하나	기업	KEB하나
	2위	우리	신한	KEB하나	신한	신한	신한	신한	기업
소형 은행	1위	부산	부산	부산	부산	경남	대구	경남	부산
	2위	대구	대구	경남	경남	부산	경남	대구	대구

\* 기업은행은 '16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 그룹에서 경쟁(16년 前 기은은 특수은행 그룹)

### < 대형 은행 >

- ① KEB하나은행은 투자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순위상승의 주요인이며 공급규모나 기술기업지원(절적지표)에서도 양호
- ② 기업은행은 공급규모에서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기술기업지원(절적지표) 측면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투자부문이 다소 미진하여 전기대비 순위가 하락(1위→2위)

### < 소형 은행 >

- ① 부산은행은 공급규모면에서 타 은행을 크게 앞섰으며 기술기업지원(절적지표), 투자부문에서도 양호한 성적으로 2년만에 1위
- ② 대구은행은 인력, 전담조직, 리스크관리 체계 등 지원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으로 2위

- (시사점) 기술금융이 양적, 질적으로 지속 성장하여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중

- (1) (양적 측면) '18년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순증액은 15.0조원으로 전년 동기('17.上 12.1조원) 대비 대폭 증가(2.9조원, 24.0%)

※ 기술신용대출 순증액 추이(조원) :

('16.하) 11.2 → ('17.상) 12.1 → ('17.하) 11.6 → ('18.상) 15.0

- 기술기반 투자(누적액)의 경우 전년 동기('17.上)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17.上) 11,636억원 → ('18.上) 23,725억원,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

(2) (질적 측면) 기술금융대출은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하여 금리 0.20%p 인하, 한도 2.6억원 확대 등 실질적 금융편의를 제공

- 또한, 기술금융 대출은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17.6%로 일반 중기대출의 10.1%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

< 기술신용대출 - 일반중소대출 비교('18.6월 기준) >



(3) (상반기 특이점) '18년 상반기에는 초기기업\* 비중(47.3%)이 전년 동기('17.상 42.4%) 대비 크게 늘어, 혁신창업기업 중점 지원이라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 2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결과

□ (평가 요소) ①전문인력 수, ②평가서 수준, ③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④물적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 민간 기술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가 심사

○ 심사 결과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레벨)가 상향될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 평가요소 및 단계별 인센티브>

항목	예비실시	정식실시		전면실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전문인력 수 (소형은행)	5명 이상 (3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15명 이상 (7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평가서 수준 (소형은행)	70점이상 60% (70점이상 70%)	70점이상 70% (70점이상 80%)	70점이상 80% (80점이상 80%)	80점이상 80% (80점이상 80%)
직전레벨 실시기간	-	6개월	6개월	1년
물적 요건	별도 조직 마련, 자체 모형 구축, 전산화 등			
자체 TCB대출 가능금액*	-	20%	50%	제한없음

\*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 대비 비율

□ (평가 결과) '18.상, 2개 은행(농협, 대구)이 레벨1에 신규진입 (기준에 진입하였던 은행은 기존레벨을 유지)

※ (신규진입) 농협, 대구은행 ⇨ 레벨1 진입  
(기존레벨 유지)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레벨 4 유지  
부산, 경남 ⇨ 레벨 3 유지

□ (시사점) 은행권은 기술금융 시스템의 내재화 가속 : 전문인력·부서 등을 갖추고 차주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 평가모형을 개발

(1) (자체 기술금융 확대) 2개 은행의 레벨1 신규 진입에 따라 '18년 하반기부터 총 10개 은행이 자체 기술금융을 실시하게 되는 등 기술금융 시스템의 은행권 내재화가 가속화

※ 이에 따라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8개 은행(레벨 3·4)의 자체 기술금융 실적 현황 >

구분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증가율
누적 평가액	82.0조	97.0조	18.3%
자체 평가건수	5,155건	7,975건	54.7%
자체 평가 기반 누적 평가액 (자체평가 평가액 비중)	8.3조 (10.1%)	11.5조 (11.9%)	39.4%

(2) (기술평가 역량) 레벨 4 등급의 6개 은행은 전문기관 수준의 기술금융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지원(非금융 분야)을 확대

< 10개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현황 >

	레벨 4						레벨 3		레벨 1					
은행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농협	대구				
전문인력	20명	20명	23명	20명	20명	22명	7명	7명	5명	3명				
조직	평가전담조직 내 전담분야별 세분화						평가전담조직							
평가모형	은행별 독자 기술평가모형 운영 (업종·업력 등에 따라 세분화)													
전산시스템	기술금융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평가결과 DB화 및 집중 포함(레벨1 유예))													

- 기술평가 전문인력이 여신·투자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창업·R&D·IP 등 업무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술평가 역량을 적극 활용

(3) (기술평가서 품질\*) 평가서 품질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궤도에 정착한 것으로 평가

※ 평가등급 적정성, 기술성 및 시장·사업성 의견 적정성 등을 심사

< 은행별 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

	레벨 4						레벨 3		레벨 1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농협	대구
80점이상 평가서 비중	80%	100%	100%	100%	100%	100%	100%	93%	100%	100%
평균 점수	83.7	95.3	84.3	93.7	91.0	88.0	97.7	90.7	89.5	96.0

- 대부분의 레벨 4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 **평가조직과  
검수조직을 분리**하는 등 자체 TCB평가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
- 10개 은행의 평가서 품질 평균점수가 91점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못지 않은 **안정적 품질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 단, 자체 TCB평가건수 증가, 신규은행 진입 등에 따라 평가서 품질  
수준이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측면(17.下 93점 → 18.上 91점)

### 3 향후 계획

- 자체 기술평가 실시 은행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 → 은행권 내  
기술력 반영 관행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
- ① 이에 따라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여신용 TCB금융 外  
투자·IP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 현재 외부 평가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투자용 TCB평가,  
IP가치평가 등을 기술평가역량을 갖춘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② 이와 한편, 선진적 기술금융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TECH 평가 세부지표 등을 정비할 계획
- ⇒ 은행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새로운 TECH 평가지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재정비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